



기획시리즈

임경빈 / 농학박사

조경수목 산책 (V)

- 포플러 -



▲사시나무 계통의 가로수. 만주, 길림성, 알라디촌. 1988. 9

우리가 포플러란 명칭을 쓸 때 그 뜻은 몇갈래로 나뉘어져 받아 들여지고 있다.

가장 좁은 뜻으로는 미국에서 들여온 미류(美柳)나무와, 유럽 그것도 이태리에서 들여온 양류(洋柳, 양버들로도 말한다)를 합친 것으로 해석될 때이다.

더욱 좁게 말한다면 양버들이 포플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식물학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고 식물명칭에 대한 문화적 측면으로 볼때 타당할 것으로

본다.

대체로 포플러(초기에는 뽕뿌라 였다)라는 호기심에 찬 개화용어(開化用語)는 우리나라 산간벽지에까지 젖어 들어 올때 그현물의 주체는 양버들이었다.

영명은 European black poplar 이고 학명은 *Populus nigra*이다.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것은 이태리로 부터였고 그래서 이태리포플러 또는 그산지를 생각해서 톨바르디포플러로 호칭하는 것은 유식한 사람들의 말이었다.

이러한 포플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약 100년전의 일이다. 당시의 명칭문제를 고찰해 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다.

한일합방이 되기 약 3개월전 즉 율희 4년 5월 31일 농상공부 대신은 삼림수목명칭통일에 관한 고시(告示)를 내리고 있다. 그 고시의 전문내용(前文內容)이 흥미있게 되어 있다.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는 산림국 그리고 임업사무소 공문서에 있어서 나무명칭을 쓸 때에



▲ 양버들 (*v. italica*)의 아름다운 모습. 광복이전에 식재된 것. 강원도 영월 1988. 6

는 일본명으로 기재하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명칭을 곁들여 쓴다. 그리고 나무에 대한 일본명과 한국명은 다음 대조표에 따르도록 한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대한제국은 국권이 병들어 있었고 마취상태에 놓여 일본이 날뛰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총 112수중에 대한 명칭대조표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적은 수량이 아니다. 그중 포플러에 관련된 것을 뽑아 본다. 당시의 이 공문서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다.

첫째 :

일본명; 피라미도야마나라시

한국명; 피라미도야마나라시
일본통속명; 亞米利加白楊
과명; 양류과

학명; *Populus, pyramidalis,*
Spach.

둘째 :

일본명; 모니리훼라야마나라시

한국명; 모니리훼라포푸라

모니리훼라야마
나라시

과명; 양류과

학명; *Populus, monilifera, L.*

첫째는 학명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의 양버들 (*Populus nigra var. italica*)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본통속명 「아메리카백양」으로 나타낸 것은 잘못이었다. 한때 학명에 「피라미달리스」 (*pyramidalis*)를 사용했으나 지금은 이것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피라미달”이란 나무의 곁가지가 줄기따라 올라가는 형상을 뜻하는 것으로 양버들의 빗자루형태를 잘 표현한 말이다.

학명표기에 있어서 속명다음에 또 종소명(種小名) 다음에 「,」의 기호를 넣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된 부분이다. 올바른 학명은 앞서 이미 들어 두었다. 우리나라에 양버들이 유럽에서 들어와 한때 「피라미도야마나라시」로 호칭되었다.

「야마나라시」는 사시나무에 대해서 흔히 쓰는 일본명인데 양버들이나 미류나무에 대해서도 일본사람들은 이명칭을 쓰고 있다. 야마나라시란 (山鳴(산명)의 뜻으

로 잎이 바람에 나부껴서 소리를 내면서 산을 시끄럽게 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학명에 모니리훼라 (*monilifera*)가 들어 있는데 지금에 이것 대신에 *P. deltoides*를 쓰고 미류나무 또는 미루나무로 말하며, 미국에서 건너온 것이다. 필자도 학교에 다닐 그때는 일제시대 였지만 모니리훼라포플라로 배웠다.

미류나무의 어린가지에는 모가 나있는데 그래서 「모니리」로 되었다 해서 우스개소리를 했지만 나무명칭을 기억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1910년의 고시중 외국수중에 양버들(피라미도포플라로

▼ 줄로심어진 양버들. 다뉴브강가 1980. 10.





▲ 줄로 심어진 양버들.
이태리 북부지방. 1988. 8

된것)과 미류나무(모니리훤라포플라로 된것) 두 수종이 들어 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두었다. 그런데 최근에도 유럽원산의 양버들을 일본에서는 『아메리카야마나라시』로 표현해서 설명한 것이 있고 (上原敬二, 1959 樹木大圖說)이것은 서양야마나라시로도 말한다고 했다. 서양수종에 왜 아메리카라는 명칭을 넣었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이나무가 일본으로 들어간 것이 1868년이라하니, 그때는 아메리카가 서양이나 비슷한 곳으로 혼동돼서 나무이름에 까지 영향을 것이 아닐까.

참고로 일본에서는 「포플러」라

하면 『롬발디포플러』(Lombardy poplar) 학명으로는 *P. nigra* var. *italica* Moench에 대한 것으로 제한하는 일이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엄격한 뜻으로는 미류나무는 포플러가 아닌것으로 된다.

롬발디란 지명이 붙어 있지만 그곳에 이나무가 식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산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한다. 롬발디포플러의 원산지는 유럽이라는 설과 서방아세아라는 설도 있다. 또 사람에게 따라서는 var. *italica*로하지 않고 cv. *italica*로 하고 있어서 그간에 혼미스러움도 없지 않다.

지난날 우리나라 수목학에 큰 영향을 끼친 우에끼(植木)교수는 *P. nigra*를 흑양(黑揚 구로야마나라시)으로 *P. nigra* var. *italica*를 피라미트야마나라시로 표현했다.

본고에 있어서 조경수로 다루고저하는 포플러는 양버들(*P. nigra* var. *italica*)과 미류나무(*P. deltoides*) 두수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양버들은 수형이 아름답기 때문에 포플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양버들과 미류나무 사이에는 많은 튀기가 생겨나서 식재가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튀기를 통털어 *Populus x euramericana*로 말하고 있다.

양버들은 아름다운 나무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될 때 그들이 시작한 것 중의 하나가 도로를 넓히고 개설하는 일이었다. 지배적인 통치를 하는 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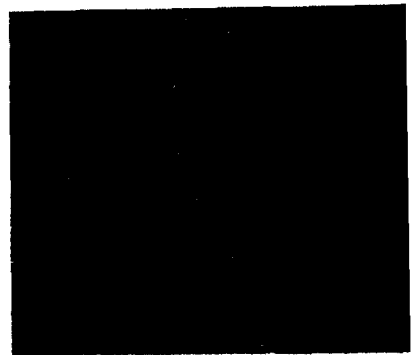
도로정비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길을 신작로(新作路)로 말했다. 신작로의 도로면에는 큰돌이 깔려서 사람이 다니기에는 불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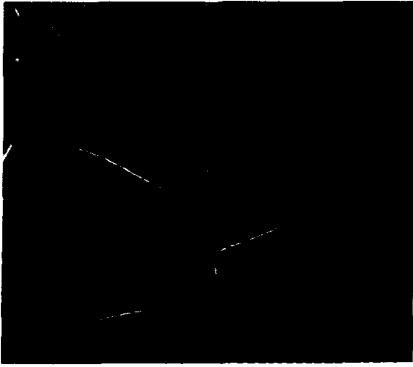
그래서 사람들은 돌이 없는 갖길을 따라 걸었다. 이 신작로가에 일제히 가로수가 심어졌는데 그것은 거의 예외없이 양버들, 소위 말하는 피라미트포플러였다. 대체로 수종선택에 잘못은 없었으나 건조가 잘 되는 길가에서는 자람이 부진했다.

당시 심어진 포플러의 유물이 아직 우리나라 각처에 남아 있다. 미류나무보다 양버들(포플러)이 선택된 데에는 수형의美에도 있었겠으나 적응력이 강하고 수명이 더 긴데에도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포플러는 시원스럽고 깨끗하고 기품이 있고 통일된 아름다움이 있고 하늘로 솟아 오르는 기상이 있어서 철학적이거나 예술적인

▼ 미류나무의 수피.
독일. 마이나우식물원 1955. 8





▲미류나무의 잎과가지.
가지에 모가 나있다.
미국, 애틀란타 1987. 8.

성상을 담고 있다. 필자는 포플러를 고결한 시인에 상징시켜 그 추상성의 묘사를 시도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난 그 표현을 무척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것이다.

『포플러는 깨끗한 시인 같다. 푸른 하늘에 시를 쓴다든가, 알고 있는 어휘의 수가 말 수보다 많지 않으나 멋진 시를 쓴다. 담담한 시를 쓴다. 아침의 시가 저녁의 시와 다르고 봄의 시가 가을의 시와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시는 맑고 항상 새롭다.

나는 이 나무의 겨울의 시가 좋다. 포플러는 스스로가 시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부러워한다. 하늘도 땅도 그 시를 부러워한다. 해도 달도 그 시를 부러워한다. 개고랑물은 그 시의 뜻이 자기의 것이라고 시샘도 한다. 개고랑물에 발을 담근 포플러는 미소만 짓고 해명이 없다. 시감(詩感)을 불만없이

개고랑물에 나누어 준다. 온통 산골짜기가 노래며 시다.

포플러 옆에는 의례 짙레가 있다. 짙레도 노래를 쓴다. 흰노래를 쓴다. 짙레는 포플러로부터 시와 노래를 배웠다. 이와같이 산골의 시인들은 모여서 산다.

술술부는 바람에 시를 새겼다. 바람은 그들의 화려한 시집이었다. 길고 긴 시집이었다.

온갖 잎새가 모여서 비단같이 짜여진 시를 만들었다.

흔히 있는 인간들이 찾아 와서 중얼거렸다.

〈이 나무는 이쭉시개 만드는데 쓰입니다〉

〈이 나무는 짜장면 먹을때 쓰는 소독저의 재료가 됩니다〉

〈이 나무로 병원에서 환자의 헛바닥 두르는 것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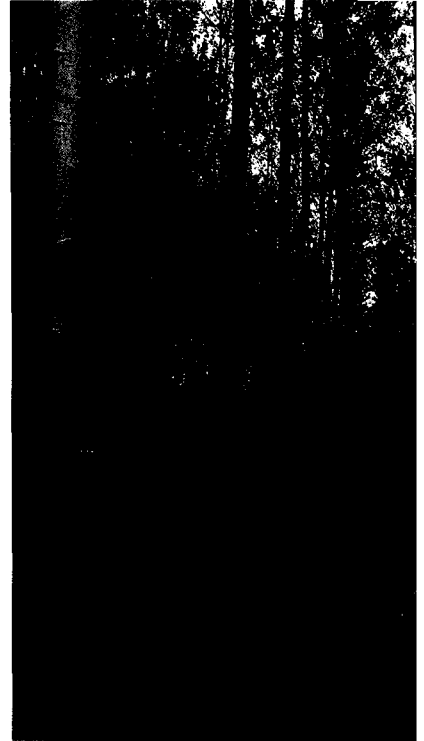
〈내일 이나무를 끊읍시다〉

인간들의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포플러는 여전히 시를 쓰고 있었다.

포플러는 높고 맑은 품위로 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나무를 좋아한다.

포플러는 줄로 나란히 서서 살아 간다. 한줄로 서서 모두들 하늘을 본다.

나의 공부방에는 벽에 두개의 그림이 걸려 있다. 그중 하나는 포플러의 천연색풍경이다. 여섯 일곱 그루의 포플러가 한줄로 서서 가을하늘의 구름을 찾고 있다. 그들 용자의 수려함에 놀라고 그 단풍의 아름다움에 혀를 내두른



▲사시나무계통 식재지.
동부육종장. 1991. 8.

다.

이 풍경은 어느해의 달력에 선보였던 것인데 나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풍경은 오래도록 나의 방을 장식해 주고 있다. 또 오래도록 그 벽에 머무를 것으로 믿는다.

이 세상 어느 나무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나의 공부방은 포플러가 있는 꿈의 방이기도 하다. 포플러 앞에는 길이 있고 그밑에는 잔디가 있다. 먼 산을 보고 포플러를 보면 나는 어느 사이엔가 이 나무 아래에서 나 스스로를 찾게된다.

이 그림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 모퉁이가 된다.』

위에 길게 서술된 내용은 1977년에 낸 나의 책 「나무백과」에서 다시 뽑은 것이다. 나는 이 문장에 지금도 애착을 느끼고 있다. 이 포플러가 서있는 풍경사진이 나의 서재벽에 걸리게 된 것은 근 20년전부터의 일이다.

그간 복잡한 이사도 몇번 했지만 요행이도 이사진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색깔이 약간 바래기는 했지만 좋다. 새로운 친구를 찾아 보는 것도 괜찮지만 더 좋은 것은 오랜친구를 버리지 않는데

▼ 불국사경내의 포플러. 1994. 3. 13.



있다고 믿고 있다.

동반관계에 있던것이 나의 결을 떠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사실 모든것이 지금 나의 결을 떠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포플라의 풍경사진은 나의 결에 있다. 나는 우리나라의 곳곳을 지날때 나무가 있으면 일단 관심을 쏟아 본다.

금년 3월중순 경주 불국사를 찾았을때 그 경내에 양버들 한그루가 멋있게 서있었다. 굵은 결가지는 거의 없고 줄기에 붙은 잔가지가 줄기따라서 싸리빛자루처럼 하늘로 뻗고 있었다. 가지를 옆으로 뺏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웃에 괴로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만큼 신세를 지는 일이 되는데 포플러는 그런 일을 원치 않는다.

서양의 것이 동양의 대가람에 들어 앉아 불도를 터득한양 단정한 매무새를 보이길래 사진으로 담았다. 나뭇잎이 떨어져 없을때라. 그 골격을 투시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나는 지금 서울 여의도에 살고 있다. 여의도는 비행장이 있었던 곳으로 전에는 쓸쓸한 섬이었고, 농경지로 이용되었다. 지금은 이것이 서울의 서울로 되어 엄청난 변모를 했다. 바다가 변해서 뽕밭으로 된다는 말이 있는데 뽕밭이 변해서 빌딩의 섬으로 되었으니 말이다. 여의도에도 물론 나무들이 서 있었겠는데 지난날의 나무는 대개 끊겨서 물속으로 들어 갔다. 그중에서도 운 좋게 살아 남

은 것이 한그루 있다.

모든 나무가 죽고 단 한그루의 나무가 원효대교쪽 길가에 서있는데 그것이 포플러(양버들로 본다)이다. 줄기의 지름이 90cm쯤 그리고 수고는 32m쯤 될 것으로 보았는데 여의도에서는 이보다 더 오래된 나무는 없다.

말하자면 여의도 나무의 우두머리가 이 포플러이고 또 이 나무보다 더 키높은 나무도 여의도에는 없다. 그래서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전반이란 역사의 시대를 살면서 이 나무는 여의도의 모든 나무의 어른으로써 행세하게 되는 셈이다.

▼여의도의 원로격인 포플러의 위용. 여의도 원효대교쪽 1993. 7.



내가 이 나무에 사진기를 들이 대고 골몰하고 있을 때 어느 신사 한분이 「그까짓것 나무같지도 않은 것 찍어 무얼 하느냐」고 하면서 쉽게 사라져 갔지만 나의 생각은 탄판이었다. 한 사물을 두고 그 가치의 평가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서울시에도 일제시대에 가로수로서 미류나무가 심어졌다. 그 유물적인 나무가 몇곳에서 발견된다. 창경원과 서울대 부속병원 간의 길을 따라 종로쪽으로 향하면 이내 나타나는 사거리길쪽에 큰 미류나무 한그루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나무가 바로 일제때 심

▼ 서울의 마지막(?) 미류나무. 창경원쪽 1988. 7.



어진 미류나무로써 이 나무가 사라지면 그들의 영상의 종말쯤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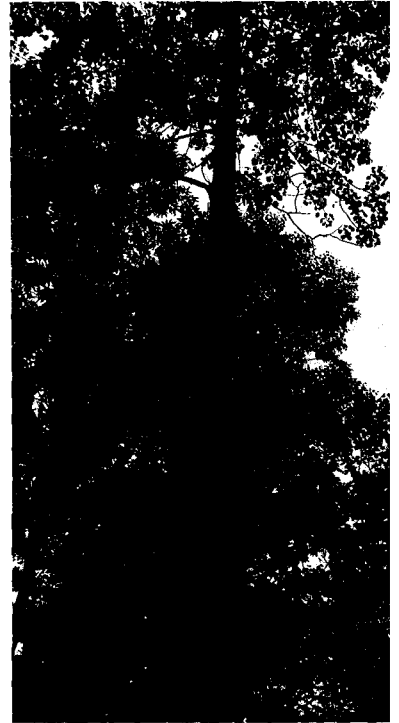
역사의 대열에서 그들이 깡그리 없어진다는 것은 서운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이 나무가 장수하기를 바랄 뿐이다.

전에는 동대문 바로 안쪽에 넓은 광장이 있었고 그곳은 버스주차장으로 쓰여졌었고 광장 둘레에는 키 큰 오래된 포플러가 줄지어 서있었다. 자연의 분위기가 넘실거리는 인상적인 주차장이었는데 지금 그 포플러는 남아 있지 않다.

인간들의 편이성 때문에 모조리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다. 인간들의 욕망은 인간이외의 생명체의 가치는 평가할 대상조차 되지 못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지금도 그곳은 자동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들 포플러가 남겨졌다하더라도 매콤한 오염된 공기 때문에 살아가기는 벅찼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의 물리적 발달은 생물요소를 서슴치 않고 밀어내고 있다. 불행중 다행이라할까 그자리에 느티나무가 들어서서 보기 좋게 자라고 있다.

내가 자라난 시골 고향마을에는 몇그루의 포플러가 있었다. 동네 입구에 연못이 있었고 연못둘레 방죽에는 대여섯그루의 포플러가 제모습대로 여름이면 찬란한 잎을 달아 술술바람에 천만가지 음향을 만들었고 그줄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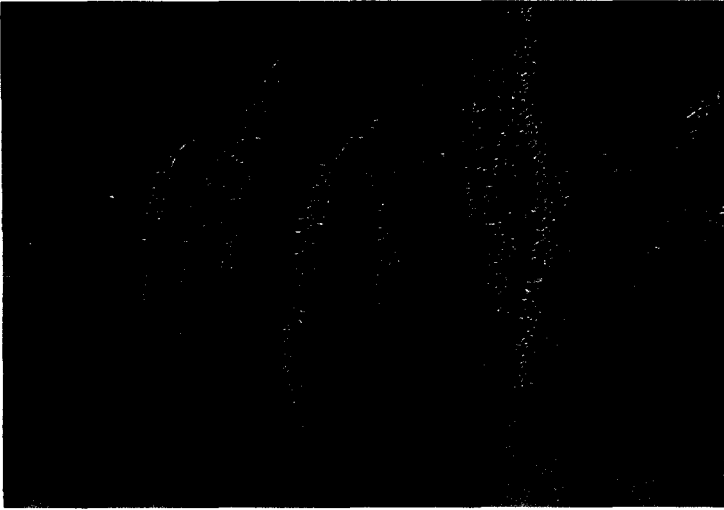


▲ 사시나무. 소련 하바로브스크에 가까운 원시림에서 1979. 8. 29.

수없는 매미가 붙어 한여름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찌는 듯한 여름의 햇볕으로 조명되는 포플러의 무대는 매미의 오케스트라가 종일토록 계속되었다. 조용한 산골마을이 음향으로 꽉 채워지는 상황은 우리 또래 어린이의 잠자는 심성에 신명나는 자극을 주는데 충분했고 피부안쪽으로 팽팽한 에너지가 축적되어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여름의 매미는 포플러를 무척 좋아한 것으로 안다.

우리집 마당옆 개울 방죽에도 큰 포플러 한그루가 서있었다. 우



▲사시나무의 꼬리화서. 암컷 1989. 4. 8.

리동네 포플러 중에서는 가장 크고 굵은 나무였다고 생각된다. 아침 저녁 그 포플러의 엄청나게 높은 키에 놀라움과 정을 느끼면서 나는 자란것으로 안다.

그 당당한 위용은 우리집 아닌 우리동네를 지켜주는 생물처럼 생각되었고 동네 어른들은 그를 따라 자리를 옮겨가면서 한낮의 이야기가 무성했었는데 그것도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는 포플러의 녹음 덕택이었다.

어느날 읍내의 양복입은 사람이 와서 흥정이 이루어지고 며칠 뒤에 이 포플러가 끊어진 것은 어린 나의 가슴에 슬픔의 자취를 크게 남겼다. 돈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전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할 필요가 있겠고 그때에는 어린아이의 의견에 가장 높은 비중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무의 죽음은 어린이의 가

슴에 더 크게 와 닿는다.

나무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어른보다는 어린아이 쪽이 더하기 때문이다. 그때 그 나무가 계속 서있었더라면 나는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시골에는 지금도 아름다운 포플러의 가로수가 곳곳에 있다. 지난 겨울인가 경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도중 영천으로 진입하는 큰 길가에 서있는 포플러의 가로수를 보고 나는 그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때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싶었으나 마음대로 되지 못했다. 어느날인가 나는 영천을 찾아 그 포플러가 가로수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고 싶다. 여름의 푸름, 가을의 단풍, 겨울의 철학 모두 사진에 담고 싶다.

명작이 만들어질 것 같다. 포플러는 집단의 미가 돋보이고 그것

도 줄로 서있을 때 황홀하다.

포플러에 준하는 것에 사시나무류가 있다. 조경적 가치로써 포플러에 따라 갈 수는 없으나 그 줄기의 깨끗함과 우리나라 고유의 수종이러는데 매력이 있고 또 돋보인다.

포플러가 평지성이라면 사시나무는 산악성이다. 포플러가 다듬어진 미라면 사시나무는 손질이 가지 않는 야생적인 미를 지니고 있다. 사시나무는 포플러보다 떨고 있는 잎이 인상적이다.

유럽의 전설에 따르면 예수가 처형된 십자가는 산딸나무의 목재로 또는 사시나무의 목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사시나무로 된 연유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선혈이 그 나무위에 흘러내렸을때 사시나무의 목재는 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그이후 사시나무의 전신은 떨리게 된 것이라 한다.

이러한 일이 있는 이후부터 포

▼폴란드 와로스 국제공항의 미류나무 1980. 10. 28.



플러나 사시나무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게 되었다한다. 지금도 프랑스계의 캐나다 사람은 포플러 끊는 것을 거절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옛적사람들은 사시나무는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나 근래 도입된 포플러는 그러하지 못했다. 이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정보(李鼎輔)의 「좁쌀죽 입쌀죽을 백양저(白楊箸)로 찍어서 자시오」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때의 백양은 지금의 사시나무를 가리킨 것이다.

정철(鄭澈)의 글에 「이몸 죽은 뒤면 지게 위에 거적덮어 졸라매어...억새풀, 속새풀, 떡갈나무, 사시나무속에 가기만하면...누구가 한잔 마시자 할꼬...」하는 대목이 있다. 사시나무는 무덤에 잘 어울리는 나무다.

나는 그것이 왜 그런고하고 생각해 본 일이 있다. 그것은 사시나무는 양수로서 울밀한 산속에서는 나타나기 힘들다. 묘지가 만들어질 때에는 나무가 끊기고 햇볕이 쬐일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시나무 열매는 찾아 들고 자리를 잡고 묘지위에 서게 되는 순서를 밟게 된다. 그래서 사시나무는 묘의 영혼과 가까운 사이로 된다. 그래서 사시나무는 탈속적(脫俗的) 속성을 가지게 된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 도연명은 그가 죽어서 자기의 시신이 상여에 실려 무덤으로 향하는 장의(葬

儀)를 상상하고 시를 지었다. 늙음이 오고 있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할것없이 이러한 상황을 짐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죽음이 선언되자 자식들의 당황하는 모습, 이리저리 전화질하면서 죽음을 알리고 시신에 새옷을 입히고 옮겨 눕히고 장의사와 장의비용을 절충하는 모습, 그리고 문상오는 사람의 면면을 상상하고 누구는 올 것이고 누구는 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땅속으로 하관하는 상황, 장의가 끝나고 자식들의 한시름 놓는 상황 등 미리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즐거움에 속한다.

도연명도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시로 읊었다. 다음과 같다.

아아 우거진 가시덤불이여
쓸쓸히 우는 사시나무여
가을서리 차고 찬대
머나먼길 따라와준 친구여
나는 가시덤불 잡초속으로
스산하게 떨고 있는
사시나무아래로 간다.
늦가을 서리 차고 차가운데
친구여 날마다
먼산속까지 왔구만 그래.

荒草何茫茫
白楊赤蕭蕭
嚴霜九月中
送我出遠郊

이시를 보더라도 묘지에는 사시나무가 수반하고 있다. 사시나



▲수관이 퍼지는 미류나무.
원광대학교 농대앞 1992. 11.

무는 생태(生態)가 묘지에 어울리고 있음을 말해 준다. 옛사람들의 관찰의 면밀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사시나무의 줄기껍질은 약용으로 동서양을 통해서 민간약으로 소중한 것이었다. 허묘(墟墓 연고자가 없는 묵은묘)에 난 사시나무는 약용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거꾸로 허묘에 사시나무를 나게하여 약용으로 했다는 것이다.

포플러는 아름다운 나무이다. 그들의 열매는 솜털을 가져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찾아 들어 자리 잡지 못한 곳이 없다. 이제 포플러는 대한민국의 나무로 되고 말았다.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 오고 있다. 또 살아갈 것이다.